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22/30℃ 목포 21/27℃ 여수 23/26℃

단기 4342년 (음력 5월 18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kwangju.co.kr 제18415호 1판 2009년 7월 10일 금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도시철도 2호선 2011년 착공

광주시 '확대순환형' 채택…지상고가 경량전철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오는 2011년 하반기 본격 착공 된다. 노선은 광주 도심과 외곽을 두루 아우르는 '확대순환형선'으로 채택됐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9일 시청 회의실에서 도시철도건설정책연구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광주도시철도 건설 구상 및 대안노선안'을 잠정 선정, 제시했다.

확대순환형 노선(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효천역)~조선대~광주역~전남대~첨단~수완지구~시청)의 총 구간거리는 42.5㎞다. 2호선은 지상(도로)에 교각을 세우고 궤도를 그 위에 얹어 열차가 지나도록 하는 지상고가(地上高架) 경량전철로 건설된다.

시는 도시 팽창으로 발전축이 구도심에서 외곽지역인 첨단, 수완지구로 이동하는 등 다핵분산형 도시공간 구조로 변경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심 장기발전 차원에서 이 노선을 택했다. 그동안 노선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역세권 개발· 교통복지 소외 등 주민민원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와 관련, 시는 확대순환형 노선에서 제외된 지역에는 지선을 건설해 주민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지선망은 광주역~종합버스터미널~광주시청(7.1㎞), 광산구 운남지구~송정공원역(5㎞) 구간이다.

오는 2011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비용은 모두 1조9천6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시비는 7천877억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본격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8월부터 2010년까지 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 용역, 도시철도 10개년 및 2호선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할 방침이다. 도시철도 2호선의 밑그림은 오는 2010년 6월~2011년 6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거쳐 윤곽을 드러낸다.

시는 오는 2011년 하반기에 2호선을 착공하되 광주시청~1호선 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 경기장~백운광장 노선을 우선 건설하는 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월드컵 경기장 주변 대중 교통망을 조기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도시철도 2호선 추진방안으로 1단계(2011년~2018년) 월드컵경기장 등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장 시설 집중 지역, 2단계(2018년~2024년) 이후 잔여구간 건설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이 차질없이 완공될 경우 미래 도시 발전을 기약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지하철 대중교통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사업에 투입될 시비 7천877억원도 지하철 1호선 건설에 7천939억원이 들었던 점을 고려할 경우 광주시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호선 (확대순환형) 노선

"사이버테러 막아라" 지난 7일부터 진행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정부 주요기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자 광주시 서구 풍암동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설치된 DDoS 종합대책 상황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DDoS 3차 공격

국민銀·조선일보 한때 장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9일 오후 6시께부터 예고된 대로 3차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공격 대상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사이트, 조선닷컴, 국민은행, 네이버 메일, 다음 메일, 파란 메일, 옥션 등 7개 사이트다. 공격 초기 국민은행과 조선닷컴에 대한 접속이 시간대별로 불안정했지만, 나머지 사이트 접속은 큰 애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A 관계자는 "2차 공격 대상인 사이트는 트래픽이 줄어드는 등 공격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im Gun Mo

알림

김건모 광주콘서트

8월 29·30일…13일 오후 2시 티켓 오픈

광주일보사는 '2009 김건모 전국 투어 콘서트 -Soul groove'를 개최합니다.

지난 4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도시에서 투어를 진행중인 김건모 콘서트는 매 공연마다 관객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히트 상품입니다.

1991년 '잠 못드는 밤 비는 내리고'로 데뷔한 김건모는 330만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기네스북에 오른 3집 '잘못된 만남' 등 12장의 음반을 통해 '핑계', '첫 인상', '스피드', '아름다운 이별' 등 히트곡을 발표, 세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룹 '블론'의 구준엽과 강원래가 안무와 무대 연출을 맡은 이번 공연에서 김건모는 발라드, 댄스, 레게 등 40여 히트곡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 : 2009년 8월 29일(토) 오후 8시
30일(일) 오후 6시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 광주일보
●주관 : 공연마루
●문의 : 062-220-0541, 1588-0766.
●예매 : www.ticketmaru.co.kr
티켓마루/ 티켓링크
옥션티켓/ 광주은행

光州日報社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농수산물유통공사 이달중 부지 매입 본계약

한전·농업연수원 등도 청사 설계 공모키로

신청사 설계공모와 청사부지 계약이 시작되는 등 나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근간이 될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7월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9일 민주당 최인기 의원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이달 중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본계약을 맺을 예정이며 한국전력공사, 농업연수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도 이달 중 청사 설계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나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청사 부지 1만8천757㎡를 매입기로 하고 사전예약금 명목으로 지난 3월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매입금액 84억8천900만원의 10%를 납부했다. 이어 지난 6월 8일 국토해양부의 이전 승인이 떨어지자 이달 중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청사 부지 매입은 157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처음이어서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대 공공기관 중 하나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지난 5월 본사 이전 기본계획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7월에는 청사설계를 위한 공모 실시할 예정이다. 한전은 특히 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하는 건물을 짓기로 하고 해외에까지 설계공모를 개방할 방침이다.

지난 6월 본사사옥 특성화 용역 입찰 공고를 한 한국전력거래소는 이달 중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후에 용역 결과를 받기로 했다.

또 지난 2월 청사 이전 업무추진단을 구성했던 농업연수원의 경우 지난 5월에 이전 청사 시설 면적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이번 달에 이전 청사 설계를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예산 300억원을 우선 확보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사업기본설계를 발주한 데 이어 이번 달엔 570억원이 들어갈 신청사의 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전KPS(주)는 이달 중 본사이전 기본계획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뒤 오는 9월에 신청사 설계를 공모하며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이달 23일께 공식 통합한 뒤 이전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현재 나주 혁신도시 이전 예정인 17개 기관 중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4개 기관을 제외한 13개 기관이 이전 승인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비정규직 호남 1년간 8만2천명 해고될 것"

노동부, 전국 75만8천명 실직 예상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적용돼 앞으로 1년 동안 광주·전남·북·제주에서 8만 2천명이 해고될 것이라는 정부 예측이 나왔다.

또 전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하루 평균 2천77명씩, 75만8천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동부가 9일 언론사 논설위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배포한 '6개 지방청별 고용불안 규모'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 실직과 정규직 전환의 갈림길에 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수는 108만3천명이다.

이는 지난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으로 노동부가 애초 '100만명 고용 위기설'을 내놓을 때와 같은 계산법에 의한 것이다.

노동부는 기업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추측한 추세를 반영해 70%가 계약해지돼 실직하고 30%는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을 맺을 것으로 가정해 고용불안 규모를 산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계속고용과 실직의 기로에 선 108만3천명 가운데 전체 실직자의 규모는 75만8천명이고 이를 나누면 하루 2천77명, 월 6만3천175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정규직 전환자는 32만5천명으로, 하루 평균 890명, 월평균 2만7천75명으로 추정됐다.

1년간 실직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지방 노동청별로 경인이 21만9천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20만9천명), 부산(11만1천명), 광주(8만2천명), 대전(7만명), 대구(6만7천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신양파크호텔
여름 웨딩 패키지
뷔페/양식 27,000원 부터
예약실 062-228-4711~2
대표전화 062-228-8000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설계 원안대로 조속히 완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차질 없이 완공되어 광주가 세계속의 도시로 우뚝 서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옛 전남도청 자리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자는 대통령공약의 취지이며 전 광주시민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1년전 일부 5·18단체가 옛 도청 별관의 철거를 반대하며 농성을 시작한 이래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난 1년간을 참아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며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청별관을 철거하는 것이 5·18 유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정단체가 마치 5·18이 그들의 전유물인양 옛 도청 별관 철거에 반대하고 그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자체가 방해받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설계 원안대로 하루 빨리 완공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